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강북신문 3면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군성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회

7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안건처리 등 활동나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7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3월 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93주년이 되는 3·1 독립운동 재현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어린 치하를 드린다"며 "지난 1, 2월이 강북구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실천하여 강북구 발전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단계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일정 시작

"지난 1, 2월이 강북구의 시책 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실천할 단계"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시작하였다.

오는 13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생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여섯 건을 포함하여 여러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이동 봉황각 일대를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음으로써 강북구민과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 되어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게 하는 등 올해로 93주년이 되는 3·1 독립운동 재현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어린 치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유럽경제위기와 유가폭등 그리고 엔화가치 급락이라는 3중고 속에 휘둘리고 대내적으로는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와 청년실업 등 경제 전반에 낀 먹구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많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며 "지난 1, 2월이 강북구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실천하여 강북구 발전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서 "강북구민의 보다 희망 넘치는 삶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혹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민생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김도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최선 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어 '구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개시스템'의 도입과 효과에 대해 구본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은 후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와 현장 활동이 계획 돼있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강북신문 3면

구본승 강북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구정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실시간 공개시스템 도입을' 제안

구청 집행부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받아내

통합진보당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지난 3월 7일 개회된 강북구의회 158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서 '강북구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자'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구본승 구의원은 "도봉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기에 주민참여 행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도 실시할 것"을 구청 집행부에 제안한 것이다.

구정 주요사업추진현황 공개시스템 도입효과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 주요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견 댓글달기 기능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구청장, 국과별 직원, 구의회 의원들이 구정사업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구본승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북구청 기획예산과는 "구본승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공약사업 외 구정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을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원활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서면답변했다.

서울포스트신문 4면

구본승 강북구의원 5분 자유발언

'구정 주요사업추진현황 실시간 공개시스템 도입'

통합진보당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지난 3월 7일 개회된 강북구의회 158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서 '강북구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자'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구본승 구의원은 '도봉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기에 주민참여 행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도 실시할 것'을 구청 집행부에 제안한 것이다.

구정 주요사업추진현황 공개시스템 도입효과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 주요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견 댓글달기 기능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구청장, 국과별 직원, 구의회 의원들이 구정사업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발언하였다.

구본승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북구청 기획예산과는 '구본승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공약사업 외 구정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을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원활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서면답변 하였다.

동북일보 4면

議政 發言臺

'구정 주요사업 실시간 공개 시스템'의 필요성 제기

강북구 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제1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얻어 '구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 의원은 올해는 민선 5기 강북구가 출범한 지 3년을 보내는 해이며 총선과 대선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강북구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행정 을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한 도봉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도봉구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클릭 한 번으로 주요사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개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 이에 비해 강북구의 주요사업추진 공개현황은 기본 사업설명에 그치고 있고, 구청장 공약사항은 일정기간별로 업데이트 공개하는 수준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 행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도 실시 할 것'을 구청 집행부에 제안하였다.

또한 구정 주요사업추진현황 공개시스템 도입효과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 주요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견 댓글달기 기능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구청장, 국과별 직원, 구의회 의원들이 구정사업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강북구청 기획예산과는 '구본승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공약사업 외 구정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을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원활한 구청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서면답변을 했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동북일보 4면

긴급 상황에 처한 지원사업 원활하게 운영 돼야

강남연 의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발의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복지건설위원)은 지난 8일 10시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실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발의한 강남연 의원은 "우리구의 경우 2006년 4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회 개최하여 505개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로서 제정되어 긴급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사업이란 국가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1개월간 생계유지 및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북부신문 4면

강남연 의원, 긴급지원심의위 설치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사진 · 복지건설위원)은 지난 8일 10시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실제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강 의원은 "우리구의 경우 2006년 4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현재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회 개최해 505개의 안건을 심의했다"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로서 제정돼 긴급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사업이란 국가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1개월간 생계유지 및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서울포스트신문 4면

● 강북구의회 소식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발의

강남연 구의원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복지건설위원)은 3월 8일 10시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실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발의한 강남연 의원은 "우리구의 경우 2006년 4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회 개최하여 505개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로서 제정되어 긴급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한 목적을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사업이란 국가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1개월간 생계유지 및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이번 조례안은 3월 13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강북신문 5면

강남연 의원(사진 왼쪽)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발의

강남연 의원 8일 제안설명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복지건설위원)은 3월8일 오전10시에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화의 실제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발의한 강남연 의원은 "우리구의 경우 2006년 4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재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회 개최하여 505개의 안건을 심의했다"라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로서 제정되어 긴급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사업이란 국가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1개월간 생계유지 및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이번 조례안은 3월 13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강북신문 5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김도연 의원 8일 제안설명

강북구의회 김도연의원(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은 3월8일 오전10시에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독서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는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한 도서관이었다"며 "책을 통해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3월 13일 화요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도연 의원(사진 왼쪽)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포스트신문 4면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발의

김도연 구의원

김도연 의원, 강북구의회 김도연의원(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은 3월8일 10시에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독서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는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한 도서관이었다."며 "책을 통해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3월 13일 화요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동북일보 4면

책 통해 독서문화 확산 및 생활이 풍성해지는 계기

김도연 의원,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김도연의원은 지난 8일 10시에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독서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도연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는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한 도서관이었다"며 "책을 통해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오는 13일 화요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북부신문 4면

김도연 의원,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김도연의원(사진 ·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은 지난 8일 10시에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독서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는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한 도서관이었다"며 "책을 통해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